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2020년 새해 독도의 일출광경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니 자카르타, 새해 첫날부터 ‘물난리’ ... 9명 사망 밤사이 최고 200~300mm 폭우...주택·차량 침수에 정전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1일 새해 첫날부터 ‘물난리’가 나 최소 9명이 숨지고 주택·건물 수천 채가 침수됐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새 폭우가 내리면서 자카르타 주요 도로와 통근 열차 선로, 주택과 차량이 곳곳에서 침수되고, 정전과 단수도 잇따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밤사이 100mm 이상 내린 곳이 많고, 일부 지역은 200~300mm가 쏟아진 곳도 있다”며 “앞으로 2~3일 동안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지 방송 매체들은 전날에

는 새해맞이 불꽃 쇼를 보여줬으나 이날 새벽 해가 뜬 뒤에는 침수 현장을 찾아다니며 재난방송을 했다.

자카르타 북부 플라빠가당, 중앙자카르타, 동부 보로부두르 대학 캠퍼스, 서부 프리삭피 대학교, 남부 끄망지역 등에 30~60cm, 1.5m, 최고 3m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브카시, 땅으랑, 보고르 등 자카르타 외곽 수도권 지역에도 홍수가 발생했다.

재난당국에 따르면 폭우와 홍수로 적어도 90개 지역이 침수됐고, 저지대 주민 1만9천여명이 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당국에 따르면 16세 학

생이 골목길 물웅덩이에서 감전사하고, 3명이 물에 빠져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또 산사태로 4명이 숨지고, 1명은 익사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주택·건물 수천 채가 침수됐으나 정확한 집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 등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으나 자카르타 수도권에 수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 우기 들어 처음이다.

SNS에는 차량이 물에 빠져 떠는 움직임이 못하는 모습, 집에 물이 들어차 가재도구가 떠다니는 모습, 곳곳에서 보트나 카누를 타고 다니는 모습 등 피해 사진과 동영상도 속속 올라왔다.

침수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4~5곳이 폐쇄됐고, 통근 열차도 선로 침수로 일부 구간만 운행하고 있다.

자카르타 동부의 할림 뿌르다나꾸수마 공항도 활주로 침수와 약천후로 이날 임시 폐쇄돼 승객 1만9천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여객기는 할림 공항 대신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착륙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자카르타 전체가 새해부터 혼란하니, 외출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일부 한국 교민도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시

민 안전을 최우선 해 할림공항 등 수해로 마비된 공공시설을 조속히 정상화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스리 재무 장관, 지와스라야 지급불능 문제 형사 고소 검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국영 생명 보험사 아수란시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가 일부 보험금을 체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17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10월에 지급되어야 할 총 8,020억 루피아의 보험금이다.

이 체불 내용은 지난 4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자 48명이 인도네시아 하원 6분과위원회에 출석해 10여명의 의원을 상대로 1년 넘게 돈이 묶여 있는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스리 장관은 “국회와 공동



으로 문제 해결에 힘쓰고, 지와스라야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당시 경영진들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지와스라야는 2018년에 15조 8,900억 루피아, 올해 1~3분기에 13조 7,400억 루피아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와스라야를 구제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BINTANG BEER PROMO*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에 5천만 달러 지원... 제4차 산업혁명 추진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제조 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 4.0(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한국 산업자원부와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이

하 NRC)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공동 사업(5년)의 자금으로 쓰인다.

공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산업으로 지정한 ◇식음료 ◇섬유·의류 ◇자동차 ◇화학 ◇전자 - 5개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산업자원부와 NRC는 지난해 9월 제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발리에서 제1차 합동 소위원회 열고 연구와 정책 지원, 인재 교류,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 협력 내용을 협의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기기(ILMATE)국의 하르얀포 국장은 "공동사업으로서 밸류체인이나 디지털 인프라, 스마트 시티 정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NRC는 내년 2월에 제2차 합동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교통부, 전기자동차 등 66개 모델 형식 인증 통과



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운국의 주행시험차량인증기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EV)와 전기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총 66개 모델이 최소한의 법적·기술적 요구사항과 안전성 등을 충족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형식 승인 시험에 합격했다. 내년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행시험차량인증기관의 캐롤라인 기관장은 "66개 모델의 내역은 EV 28개 모델, 전기 버스 4개 모델, 전기 오토바이 34개 모델이다"라고 말하며 "일반 수입업자가 수입한 브랜드와 여러 EV 모델

을 가진 브랜드도 있어 형식 승인 검사의 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테슬라 EV와 미국 전기 오토바이 제조업체 제로 모터 사이클즈 모델이 특히 많았다.

캐롤라인 기관장은 "EV 등의 형식 승인 검사는 가솔린 차량의 검사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통부가 EV용 검사시설을 서둘러 건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독도의 새해 일출광경

인도네시아 국가 전략 프로젝트, 내년 초 71 안건 추가



▲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포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포(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내년 초 인프라 사업 71개안건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정부는 2016년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인프라 사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정해

현재까지 223개 안건 중 88건이 완료됐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인프라 사업 71개 안건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방침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각 안건의 담당 부처를 결정하고 향후 2개월 내 최종 결정한다.

대상 안건은 고속도로, 항만, 공항, 교통, 폐기물 처리장,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등. 모두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한다.

현재까지 완료된 88개 안건의 총 사업비는 421조 1,000억 루피아로, 연내에 총 103개 안건에 달할 전망이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리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년사]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재인니 한인회장 박재한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가족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한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한인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제 6대 한인회가 힘차게 출범하고, 화해와 협력, 소통, 공감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도네시아한인회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를 내다봅니다. 2020년은 우리 한인회도 목표를 위해 많은 뜻과 정성을 기울이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100주년 기념사업 올해는 1920년 9월 20일 장윤원 선생의 자와 땅 도착을 기점으로 한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는 한인역사 서입니다. 한인회는 지난 100년간 인도네시아한인의 분야별 발자취를 총망라하여 한인 동포들의 100년을 되돌아보는 '한인 100년사' 출간을 계획하여 지난 해 7월부터 편찬위를 출범하고 수개월간 여러 채널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편찬위 집필진들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을 '한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 체험 등으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이로써 세상을 관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확대하고, 관찰하여 연결하는 우리의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봉사하는 한인회면저 한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와 소통·공감

하는 한인회,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모두의 역할이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네 삶에는 온기와 여유, 대화와 미담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을 쌓아왔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혼란 가운데 타국에서의 더욱 세밀한 주의와 대처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경자년 한 해 되시고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신년사]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인도네시아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마트라 북단에서 파푸아 남단까지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및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서명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진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말부터 연산 25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버스를 타고 5박 6일 동안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짜레본, 브레베스, 솔로를 거쳐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횡단하는 '뜨고 낭 자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섬 곳곳에 한류를 홍보하는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4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조코위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은 최초의 한인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대사관은 한인회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의미 있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인 이주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인인간 Maju Bersama'의 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사관 부임한 2018년 첫 해 롬복 지진과 빨루 지진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자카르타 지진과 자바섬 대정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대사관은 한인 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문

자금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리, 롬복 여행시 좀 더 안전하게 여행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극 동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영민함과 근면함으로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에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인도네시아, 팜유 30% 함유 바이오디젤 세계 최초 의무화조끼위 “화석 에너지 의존 줄이고 경상수지 적자 개선”



▲ 조끼위 “B30으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팜오일 원유(CPO)가 30% 혼합된 바이오디젤 ‘B30’ 사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의 54%를 생산한다. 조끼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B30 출시 기념회에서 “이것은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며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 생산국이다. B30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수입 대체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끼위 대통령은 또 “팜유 구매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디젤은 깨끗한 에너지”라며 “그들이 팜유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하면 된다. 우리의 협상 지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팜오일 원유를 20% 섞어 만든 ‘B20’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B30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례로 B40, B50까지 팜유 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B30을 경유 차량 연료로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마쳤다. 에너지부는 이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초로 B30을 출시한 국가로 기록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B30 사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일간 폼빠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는 팜나무를 심기 위해 열대우림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운송 연료에서 팜오일을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 인도네시아, 팜유 30% 함유 바이오디젤 세계 최초 의무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 농장 농민들이 팜오일 가격 급락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유럽연합은 또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해 갈등이 고조됐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퇴출 정책이 불공평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달 제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원유가 섞인 바이오디젤 사용을 이처럼 전방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유차 운전자는 물론 특히 중장비 등 기계류 사용자들은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니 K팝 팬들, EC 상품 수입 관세 인상에 반발



25일 5월 더 이상 무한 확대 업체를 통한 온라인 쇼핑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현지 K-pop 팬들이 소셜 미디어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관국의 해루 팜부디 국장은 전자상거래(EC)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화 3달러 이상의 전자 상거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관세 기준은 75달러 이상부터였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조치는 정기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과 앨범을 구매하는 열렬한 현지 K-pop 팬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에 K-pop 팬들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에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한 K팝 팬은 “K팝 굿즈는 국내 산업에 아무런 해를 미

치지 않는다”며 “내가 K팝 앨범 한 장을 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며 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인니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정 조치라는 설명이다.

EC 영업 허가의 취득 의무화...사업자에 혼란 확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1월 25일자로 공포·시행한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정령 ‘2019년 제80호’와 관련, EC 사업자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령은 EC 플랫폼상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영업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규정 내용이 모호해 해석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이그나티우스 회장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중기청 ‘Excellence Award’ 수상 마을 여성조합 육성... 사회적 가치실현 우수기업 인정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KOMIPO Asia가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The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all Medium Enterprises)으로부터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그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대표법인인 KOMIPO Asia는 지난 4월부터 KOTRA와 OVOP(One Village One Product)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업인 OVOP 사업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특화상품 개발을 통해 저소득 지역의 경제활성화 증진을 목표로 코트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이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KOMIPO Asia는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중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주변의 마을조합을 우선적으로 물색, 팡가무스 수력발전소 인근의 여성 191명이 소속돼 있



는 SriKandi 조합과 협약을 맺었다.

KOMIPO Asia는 연 매출 850만원에 불과한 마을 여성 조합을 위해 ‘하나의 잘 팔리는 제품’으로 지역 커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커피머신 지원과 조합원들에게 인니 커피 수출협회의 전문인력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니 인니 커피수출협회로부터 커피품질 인정을 받아 2020년에는 매출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KOMIPO Asia는 또 조합원들에게 환경단체로부터 친환경 커피재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무분별한 산림 개발을 통한 커피재배를 방지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2006년 지레본 발전소 수주를 시작으로 탄중자티 발전소, 완푸 수력발전소, 팡가무스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현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KOMIPO School 3개교 및 KOMIPO 도서관 건립, 에너지 자립을 위한 소수력 발전 지원, 청년 직업훈련센터 운영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성과를 인도네시아 사회와 공유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데일리]

미국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EC 시장 규모는 현재 210억 달러로, 2025년 82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까지나 포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부와 경제조정부, idEA와 상의 후 세칙을 제정할 방침을 나타냈다.



서 사업자로서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사업자 사이에서도 투자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한 남성도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등록이 필요하게 된다면 창업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부 관계자는 “정령은 어디

인니 정부, 수도 이전 관할하는 '신수도개발청' 설치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칼리만탄주에 수도 이전을 관할하는 '신수도개발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

에 대해 "준비, 개발, 이전 과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조만간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대해 단순한 정부 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 기반 등도 이전하고 싶은 생각을 표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글로벌 혁신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 혁신 센터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페나스, Bappenas) 장관은 신수도개발청

조코위 대통령, 철강 및 석화 산업 투자 규제 완화 촉구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석유 화학 제품 등 소재 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내 생산을 늘려 원료의 수입 대

체를 목표로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산업 및 무역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 체질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액을 줄여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에 주력할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철강과 석유 화학 제품의 자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조정청(BKPM)과 해양투자조정부에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조코위 대통령에 따르면 1~10월의 수입액 중 원료 및 부자재가 74%를 차지했다. 철강재 수입액은 86억 달러, 석유 화학 제품은 49억 달러였다.

도와 에코 시스템, 서부자바주에서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 착공

도와 홀딩스(DOWA Holdings)의 환경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도와 에코 시스템(Dowa eco System)은 16일,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에 유해 폐기물 소각 설비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1에 착공하며 2022년 3월 가동 개시가 목표이다. 하루 처리 능력은 50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유해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을 보유한 빠르사다 빠우나 림바 인더스트리(PT Persada Pamunah Limbah Industri, PPLi)의 보고르부지 내에 건설한다. PPLi은 폐기물 수송 및 연료화,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 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만톤의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다.



소각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세로형 스토커 방식을 채용했다. 이 회사

는 싱가포르에서 2017년부터 동일한 소각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DOWA 에코 시스템은 2008년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태국과 미얀마를 포함한 4개국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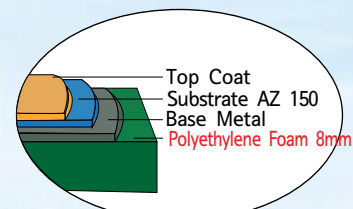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인도네시아, 새 수도 이전 급물살... 2023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 새 수도 설계 공모 당선작 확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2월 23일 새 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PURP)에 따르면, 새 행정수도 설계공모는 총 291개사가 응모했다. 당선작으로 건축설계사무소 '소피안 시바라니'(Sofian Sibarani)의 '느가라 립바 누산따라(Negara Rimba Nusantara, 군도와 숲의 나라)'라는 제목의 작품이 낙점됐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소피안 시바라니는 "외국 건축가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새 수도 설계 공모의 평가 기준은 ▷도시 기능 ▷하천과 주변 지형의 연결성 ▷수도로서의 상징성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지속가능한 삶에 적합한가 등을 따졌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PURP 장관은 새 행정수도가 다른 나라의 설계와 다른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당선작 '느가라 립바 누산따라' 설계를 100% 적용하지 않고, 입선된 응모 작품 2~3개를 더 적용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도는 만(灣)을 끼고 있는 동부칼리만탄 주(州) 북부 빠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 군(郡)이 수도의 핵심지역이 된다. 또 인근 꾸파이 느가라(Kutai Kartanegara) 군으로 도시가 확장하게 된다. 새 수도의 총 면적은 25만6천ha이고 5만6천ha가 수도의 핵심지역이며, 5천600ha 면적에 정부 청사가 들어설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새 수도에 행정·입법·사법 부처, 공관, 학교, 연구소, 실리콘밸리 등 들어서"

조코위 대통령은 새 수도 설계 공모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6일부터 사흘동안 동부칼리만탄과 남부칼리만탄 지역을 방문해 새 수도 지형을 둘러보고 입법과 사법, 행정 부처의 청사가 각각 입지할 지역과 외국공관, 대학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혁신단지 및 주거지역이 각각 들어설 자리를 확정했다. 또 새 수도 외곽 지역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으로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문화의 변화, 업무 체계와 경제 발전의 가속화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앞서 제대로 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여러 나라의 수도 이전 사례와 경험을 연구해달라며, 새 수도는 고비용, 공무원과 외교관이 거주하는 한적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이 심사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새 수도에 대한 청사진이 확정되면서, 당초 2021년에 새 수도 건설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년 가량 앞당겨 2020년부터 새 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국회에 새 수도 관련 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 따라서 내년 중반에 개간작업과 정부 관청을 짓기 시작하고 동시에 발전소, 상하수도 및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을 시작해 2023년에 완공할 방침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칼리만탄 방문 기간에 새 수도 예정지에 남쪽에 위치한 남부칼리만탄 주 반자르바루 삼수딘 노르 국제공항터미널 준공

식에 참석한 데 이어, 동부칼리만탄 주 발릭빠판 시와 사마린다 시를 잇는 칼리만탄 최초의 고속도로 3개 구간(58.7km) 준공식에 참석, 수도 이전에 앞서 주변 지역 인프라 개발 상황을 둘러봤다.



새 수도 예정지에 인접한 도시인 발릭빠판과 사마린다 고속도로(총99.3km)가 내년 4월에 완공되면, 새 수도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동맥이 되고 석탄, 석유, 가스 및 광물 등 자원의 물류 이동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가? 자카르타에서 동부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 이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의 기능

상실이다. 지반침하, 심각한 수질과 대기 오염, 교통 인프라 부족,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 편중 등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상수도 보급률이 60%에 불과한 자카르타에서는 기업과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해 지반이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으며,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얕진 데 덮진 격'이다. 현재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고, 오는 2050년에는 저지대 비율이 9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방조제를 쌓아 물난리는 막을 수 있지만, 지반침하가 계속된다면 도로 균열, 건물 붕괴, 수도관과 가스관 등 인프라 시설 파괴가 불 보듯 뻔하다.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량인 1억6천만 명

이 본섬인 자바 섬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자바 섬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자바 섬의 산업시설은 주로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1천만 인구의 자카르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1천만 명 가량의 유동인구로 과포화상태가 돼 차량 운행속도가 평균 시속 10Km 이하로 떨어지는 교통지옥으로 변한다.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억 달러 가량이며, 대기오염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홍수, 지진, 쓰나미 및 화산 등 자연재해 위험도 도시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도 중앙에 위치한 동부칼리만탄 주 북부 빠나잠 빠세르와 꾸파이 가르파느가라 등 2개 군에 걸쳐 있는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는 인근에 발릭빠판과 사마린다 등 중간 규모의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와 항구, 항만 등 육해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도 이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부문 협력 기대

총 33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가량이 투입될 새 행정수도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전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따마 까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관련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끝)





26일은 23만명이 사망한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주 9.1 강진' 발생 15주기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난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양 쓰나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당시 기억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12월 26일 오전 8시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앞바다 해저에서 초대형 강진이 발생했다.

최고 높이 30m에 이르는 쓰나미가 수마트라섬 서부해안은 물론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 연안 12개국을 강타했다. 쓰나미는 7시간 넘게 인도양을 가로질러 동아프리카 일부까지 황폐화됐다.

당시는 쓰나미 조기 경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해안에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

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만 17만여명이 사망(이하 실종자 포함)했고, 스리랑카에서 3만5천여명, 인도 1만6천여명, 태국에서 8천200여명이 숨졌다.

당시 태국의 푸켓 등 동남아 해변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가를 보내던 외국 관광객이 많았기에 한국인 18명을 포

함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숨졌다.

반다아체 주민 아리프 무난다(49)는 2004년 당시 쓰나미가 마을을 쓸고 간 지 나흘 만에 시체 가방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 등 24명의 가족을 잃었다.

무난다는 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려면 조기 경보시스템

23만명 사망 '인도양 쓰나미 15주기...생존자들, 경험 공유 쓰나미 생존자, 재난 기술자·박물관 가이드 등 근무

구축이 최우선"이라며 "쓰나미 경보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후 아체주의 재난 당국 무선통신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6년 동안 구호캠프에서 생활하다 새 주택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도 두 명 두고 있다.

아체주 쓰나미 박물관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아밀라 안티 또한 쓰나미 생존자이다.

안티는 "당시 부모님과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념품을 파는 문디야 빈티사한(70)은 "나는 항상 쓰나미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해안 가까운 곳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그냥 도망가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참사 이후 28개국 4억 달러(4천644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도양에 쓰나미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9월 28일 술라웨시섬 팰루 지진으로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4천300여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화산경사면 붕괴로 높이 5m의 쓰나미가 자바섬 반뜰과 수마트라섬 람똥 해안을 덮쳐 400여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코이카, 내년 신남방·북방 원조에 2천억 투입...32.5% ↑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는 내년 정부의 주요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기여하고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에 올해보다 32.5% 증가한 1천9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남방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1개국을 가리키며,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

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 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우선 이들 지역과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청연수 예산을 2019년 529억원에서 2020년 641억원으로 증액했다.

원조분절화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 예산인 '융합 ODA(공적개발원조) 연계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100% 늘어난 20억원으로 책

정했다.

해외에서 원조사업 수행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안전담당관 14명을 신규 파견하기로 했다.

이밖에 ODA 정보 접근성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관리 예산도 39% 늘어난 19



억원으로 잡았다.

코이카 내년도 전체 예산은 9천404억원으로 올해의 8천328억원에 비해 12.9% 증가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2010년 4천318억원에 머물렀던 예산이 10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났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원조 비율(ODA/GNI)이 0.15%로 OECD 국가 평균인 0.31%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ODA가 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국가적 실익을 고려할 때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니 발리, 아고다

'아시아.태평양 새해맞이 인기 여행지 10' 에 선정

인도네시아 발리가 '아시아.태평양 새해맞이 인기 여행지 10'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 제공 업체 아고다(Agoda)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기 여행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고다의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새해 전날인 12월 31일 예약률을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여행지가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본 도쿄가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로 2019년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8위로 인기 목적지 중 하나로 선정되며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태국의 파타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만의 타이페이 2위로 올라 3위로 추락한 방콕을 제쳤다. 서울은 5위를 차지했다.

새해 전야를 맞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개 여행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도쿄
2. 대만 타이페이

3. 태국 방콕
4. 일본 오사카
5. 대한민국 서울
6. 필리핀 마닐라
7. 태국 치앙마이
8. 인도네시아 발리
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0. 태국 파타야

온라인 쇼핑데이, 판매액 9조 루피아 이상...목표치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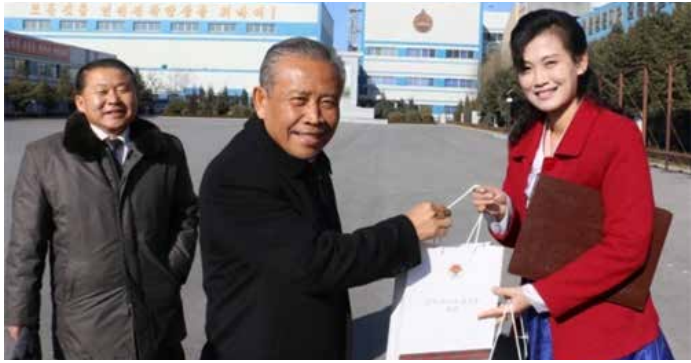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18일 국내 전자상거래(EC) 업체가 11~12일에 개최한 '전국 온라인 쇼핑 데이(약칭 하리 블란자·Hari Belanja) 거래액이 9조 1,000억 루피아였다고 밝혔다. 목표 8조 루피아를 크게 넘어 지난해 거래액(6조 8,000억 루피아)에서 34% 증가했다.

닐슨 인도네시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액이 늘어난 요인으로 EC 사이트 대부분이 공공요금 등의 청구 금액 결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꼽았다.

국산품 판매액은 4조 6,000억 루피아로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루피아 많았다. 의류와 화장품 등 패션 관련 제품은 6% 증가했다.

출점 업체도 지난해 대비 8% 늘었다. 구체적인 참가 업체 수는 협회와 닐슨 모두 밝히지 않았다.

인니가 北 대동강 맥주 수입?...주 평양 대사, 공장 방문 평양 대사관 “북한과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기회 모색”



남북한 모두와 수교국인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 수입에 관심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의 주평양 대사는 지난 20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베를리안 나피투폴루 대사가 12일 대동강 맥주 공장을 견학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대사는 사진과 함께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는 분야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밝혔다.

CNN인도네시아는 24일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베를리안 대사가 대동강 맥주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고, 그 반대로도 수출하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베를리안 대사는 “대동강 맥주는 여러 나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라며 “대동강 맥주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해남 대동강 맥주 공장장은 “양국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협력을 증진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답했다.

맥주는 유엔의 대북제재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CNN인도네시아는 전했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압체 다리 인근에 있는 부지면적 10정보(9만9천㎡), 건평 2만㎡ 규모의 대동강 맥주 공장은 2002년부터 가동됐다.

대동강 맥주 공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스위스 북한대사관에 임무를 맡겨 175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과산한 양조장을 매입하고, 그곳의 생산설비는 물론 변

기 뚜껑과 바닥 타일까지 고스란히 옮겨왔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대동강 맥주 공장은 하루 1만2천병, 연간 7천만ℓ를 생산한다. 이 공장은 보리·밀·백미·홉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든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종류의 맥주를 생산한다.

대동강 맥주는 북한 안에서 주로 소비되고, 중국으로도 수출된다. 지난해 수출액은 200만 달러(23억2천만원)로 알려졌다.

북한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대동강 맥주 시음이 필수로 꼽히며, 여행객들은 대체로 “맥주 호프향이 진하고 달착지근하며 시원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1964년에 먼저 수교했고, 한국과는 1973년에 수교했다.

[연합뉴스]

SBS, 인도네시아 ‘런닝맨’ 제작...동남아 최대 시장 공략

SBS가 인도네시아판 ‘런닝맨’을 공동제작한다.

SBS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 SBS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자인 FCL과 ‘런닝맨’ 인도네시아 시즌1 공동제작 딜레모 체결식을 가졌다. FCL은 인도네시아 재계 4위 대기업인 시나르마스 그룹의 투자회사로 OTT사업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런닝맨’을 공동 제작하는 것은 3번째다. 인도네시아판은 내년 중순 현지 지상파와 OTT 방영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1위 기업 토코피디아와 협력을 통해 콘텐츠 커머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인구인 2억 7000여 만명을 보유한 만큼 한류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SBS는 인도네시아 지상파 MNC TV와 내년 상반기 ‘판타스틱 듀오’ 방영을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지상파 SCTV와는 ‘좋은 친구들(극과 극)’을 공동제작·방영할 예정이다.

[미디어데일]

금융감독청, 소형은행(BUKU 1) 분류 기준 인상...소규모 은행 인수합병 촉구 목적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핵심자기자본이 1조 루피아 미만인 ‘BUKU1’의 범주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에 3조 루피아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핵심자기자본이 1조~5조 루피아의 ‘BUKU2’ 은행과의 인수합병(M & A)을 촉구한다.

상업은행은 자본금 크기에 따라 네 개의 카테고리(BUKU1~4)로 분류된다.

현지 언론 끈판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OJK의 해루 이사는 앞서 “BUKU1과 BUKU2



은행 간 통합을 추진해 소규모 은행 자본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OJK는 BUKU1

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2020년에 1조 루피아 이상, 2021년에 2조 루피아 이상, 2022

년 3조 루피아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계 은행 IBK 인도네시아의 알렉산더 이사는 “2020년에 라이즈 이슈를 실시하고 1조 루피아를 조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자기자본을 2조 4,000억 루피아로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도계 은행 오브 인디아 인도네시아 뿌리마스라 이사는 “최저자본금 1조 루피아는 이미 달성했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소규모 은행은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c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4년 계약 ... 희망 가지고 수락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20세 이하 모두 맡아...연봉은 비공개
“2021년 U-20 월드컵, 홈팀으로서 예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과 4년 계약(보고르=연합뉴스)

신태용 감독이 28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U-23), 20세 이하(U-20) 대표팀을 모두 이끈다.

신태용 감독은 “아빠 까바르(안녕하세요). 나마 사야 신태용(제 이름은 신태용입니다)” 이라고 인도네시아어로 첫인사를 건네 현지 취재진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는 “비록 인도네시아 A 대표팀이 5전 5패고, 경기를 보면서 부족한 점도 많다고 느꼈으나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오는 것을 수락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며 “2021년 U-20 월드컵 경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있는데, 홈팀으로서 예선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년 1월1일부터 출발하겠다” 고 힘줘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팀 랭킹이 낮지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며 “이제부터 첫걸음을 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선수들부터 체계적으로 만지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도네시아 축구가 개인 기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반 20분이 지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며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인 등 코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찾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력이 강해야 멘탈이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면 집중력도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면 승부 근성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고 거듭해서 체력을 강조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런 것이 하나로 묶여지면 팀원 전체가 강

해진다고 생각한다” 며 “재도약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축구를 부활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밖에 신태용 감독은 “모든 대회에 나가면 우승이 목표” 라며 목표 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팀 선수 발탁에 있어서 “해외선수 국내 선수 가리지 않고 선수들을 다 보겠다. 희생정신 없이 개인플레이를 하면 뽑지 않을 것” 이라며 ‘희생정신’ 에 우선순위를 뒀다.

또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긴 것은 철저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 이라며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박항서 감독님과 인도네시아-베트남 축구에 대해 따로 얘기해본 적은 없다” 고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신 감독의 연봉은 50만 달러(5억8천만원)~100만 달러(11억6천만원) 사이 또는 20억원 정도로 현지 언론들이 추정했으나 비공개에 부쳐졌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태극전사를 이끌었던 신 감독은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대표팀 사령탑 지휘봉을 넘겨준 뒤 휴식을 취하면서 차기 팀을 물색해 왔다.

그는 일본과 중국의 클럽팀들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과 함께 국위 선양을 하고 싶다” 며 인도네시아의 손을 잡았다.

신 감독은 이날 밤 비행기로 귀국했다가 다음달 5일에 자카르타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는 한국인 코치 3~4명과 함께 할 계획이다.

신 감독은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임 후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근성’ 을 키우고 ‘팀 밸런스’ 를 잡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년째 인도네시아 최고 갑부 하르또노, 허름한 식당서 ‘혼밥’

BCA은행 등 소유해 형제재산 43조...작년 아시안게임 출전도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부자 50인’ 에서 11년 연속 1위에 오른 억만장자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진이 SNS에 퍼져 화제가 됐다.

21일 콤포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이클 밤방 하르또노(80)가 자바섬 스마랑의 한 로컬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은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는 위신보다는 맛에 더 신경을 썼다” 고 적었다.

중부 자바 출신 화교인 마이클

밤방 하르또노는 동생인 로버트 부디 하르또노와 함께 담배회사인 자룸(Djarum)과 BCA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의 재산은 올해 기준 373억달러(43조3천억원)에 달한다.

하르또노 형제는 담배 사업으로 번 돈으로 BCA은행 지분을 인수해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가 됐다.

포브스가 발표한 이견희 삼성 회장의 올해 재산이 168억달러(19조5천억원)이며, 한국에서 100억달러 이상 재산 보유자는 이 회장 한 사람이다.

식당 주인은 기자들이 찾아가자 “하르또노는 우리 식당이 길에서 음식을 팔 때부터 찾아오던 단골” 이라며 “그는 심지어 음식의 부족한 점에 대해 조언도 해줬다” 고 자랑했다.

이어 “하르또노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참 소탈한 분” 이라고 덧붙였다.

하르또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브리지 카드게임 선수로 출전해 주목받았다.

6세 때부터 브리지를 즐긴 그는 브리지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



목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보탠 데 이어 직접 출전해 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최고령 선수로 기록됐다. 브리지는 전체 40개 종목 중 한국 선수단이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다.

하르또노는 동메달을 따서 정부로 받은 포상금 1억5천만루피아(1천250만원)를 브리지 육성 단체에 기부했다. [연합뉴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재외국민등록 말소 · 귀국신고 도입... 등록기간도 90일 연장

개정 재외국민등록법 25일 부터 시행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외국민등록제에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외 공관의 장은 귀국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이의 등록을 말소한다.

또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고자 들어온 사람은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30일 안에 등록하도록 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으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다. 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내년 하반기 한국 영사관 신설



▲ 김창범 주인니 대사 “발리섬에 영사관 신설” [자카르타=연합뉴스]

김창범 주인니 대사 “기쁜 소식...국회서 예산 확정”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한국 영사관(분관)이 내년 하반기 신설된다.

김창범 주인니대사 한국 대사는 19일 자카르타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재인니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해단식 겸 한인 송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사는 축사 중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며 “발리 영사관을 내년 하반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발리와 주변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자카르타에서 영사가 출장을 가야 했는데, 영사관이 생기면 관광객과 교민들이 영사 서비스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민은 현재 2만 5천명 안팎으로 집계되며, 발리섬에는 6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5만명이며 이 가운데 20만 여명이 발리를 찾았다.

발리섬에 한국 교민과 관광객이 많다 보니 영사관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17년 11월 발리섬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분화하자 항공교통이 마비돼 한국인 관광객 700~800명의 발이 묶이는 비상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발리 영사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 필리핀 세부 분관, 캄보디아 시엠틸 분관과 마찬가지로 총영사관보다 규모가 작은 분관이다.

한국인 분관장과 영사가 상주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강희중 제3대 재인니 대한체육회장이 제4대 이종현 회장에게 자리를 넘겼다. [연합뉴스]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전 세계로 확대

내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에게 보내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가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질병, 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학전문 상담 및 지도를 재외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19서비스다.

앞으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119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82 44 320 0119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 www.119.go.kr 또는 central119ems@korea.kr 로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9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안내

접수기간 : 2020년 1월 6일(월) ~ 1월 17일(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JKS, 교장 김윤기)에서는 해마다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을 시행하여 한국어

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 분위기에 힘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TOPIK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12일(일)에 실시되는 제69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 TOPIK II의 접수가 오는 2020년 1월 6일(월)부터 2020년 1월 17일(금)까지 진행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총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1.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명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인도네시아 국민 56%가 금융 기관 이용 ... 디지털로 금융 서비스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핀테크(IT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기업에 의한 이른바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은행 계좌 및 핀테크 서비스 계정 등 금융 기관에 액세스하는 수단을 가지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해 55.7%에 달해 2016년의 35.1%에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 더욱 진행됨으로써 격차 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국가 금융 포섭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82호'에 따라 재무부와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등으로 구성된 국가 금융 포섭 위원회(DNKI)가 2016~18년 3년 동안 전국 15세 이상 남녀 6,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계좌 보유율은 38.4%였다. 금융 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0.3%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51%인 예금이였다. 송금은 3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비율도 19.1%에 달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외곽 지역에서는 본인을 대신해 은행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는 '은행 대리인' 이용률이 63.1%였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결제 서비스가 금융 소외 계층 포용 수단으로써 주목 받고 있다.



조사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은 70.2%였다. 스마트폰에 의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6년 0.3%에서 2018년에는 4.7%로 확대됐다. 특히 도시 거주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58.7%는 일상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높고 지방·외곽 지역 거주자일수록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아직 낮고, 전자결제의 이용도 적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DNKI 조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만으로는 핀테크가 얼마나 금융 포섭의 촉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디지털 기술은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을 가속시키는 수단의 하나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결제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 환경은 크게 변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의 은행 계좌가 없는 이른바 '비은행 인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 인구 1억 8,100만 명 중 9,200만 명이 비은행 인구라고 알려져 있다.

인니 경제조정부 거시경제·재무조정국의 이스칸다르 국장은 "은행 계좌에 정부가 사회 보장 비용을 입금하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도 은행 계좌 수 증가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 예금도 국내 투자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포섭의 활성화를 향해 지금까지 '대립관계'였던 핀테크 기업과 은행과의 제휴도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대출 P2P(Peer to Peer)를 다루는 아마르타(Amarta)는 여성 기업가 대출 재원

으로 인도네시아의 복합 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 산하의 은행 뿌르마따(Bank Permata)에서 1,500억 루피아, 만디리 실버(Mandiri Silver) 산하 만디리 캐피탈 인도네시아(PT Mandiri Capital Indonesia)에서 1,000억~2,000억 루피아를 각각 조달했다.

또 다른 PtoP 사업자 인베스트리 라드히카 자야(PT Investree Radhika Jaya)는 8월 말 국영 은행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BRI)에서 2,000억 루피아를 조달했다.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는 계층의 대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청의 인가를 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 130개사에 의한 지난 9월 말 시점의 누계 대출 금액은 약 60조 4,000억 루피아에 달했다. 1,400만 건 이상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50번째 매장 '뜨갈점' 개장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지역 뜨갈시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이자 글로벌 188호점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뜨갈시는 인구 24만명의 중소도시로, 농산물을 각 도시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특히 '와르푹'이라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한 도시다.

롯데마트는 '와르푹' 종사자를 위해 도매 매장인 뜨갈점의 신선식품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50호점 뜨갈점

롯데마트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전국 10대 도시의 대형 점포와 뜨갈시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의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

할 계획이다.

1만7천개 이상의 점포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유통 채널의 발전 속도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점포를 1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프리미엄 콘셉트의 새로운 소매 매장도 열 계획이다.

롯데마트 이학재 해외개발 부문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에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매뿐 아니라 B2B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